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제주 농촌인구 전망 및 인구 유입요인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농 업 경 제 학 과
김 동 욱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 농촌인구 전망 및 인구 유입요인 분석

지도교수 김 배 성

김 동 욱

이 논문을 농업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김동욱의 농업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고 성 보 (인)

위 원 김 배 성 (인)

위 원 김 화 년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 Analysis on Forecast and Influx Factors of Population in Jeju Rural Areas

Donguk Kim

(Supervised By professor Baesung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conomics

2022. 0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Seongbo Ko,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Baesung Kim,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Hwanyeon Kim, Prof. of Agricultural Economics

Feb 2022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가. 연구 배경 ····· 1

나. 연구목적 ····· 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5

Ⅱ. 제주지역 인구 현황 ····· 8

가. 제주지역 인구추이 ····· 8

나. 제주지역 출생아 및 사망자 ····· 16

다. 제주지역 귀농인 및 귀촌인 ····· 21

Ⅲ. 제주 농촌지역 인구 전망 분석 ····· 24

가. 분석방법 ····· 24

나. 분석결과 ····· 28

다. 시사점 ····· 30

Ⅳ. 제주지역 농업부문 입지계수 분석 ····· 31

가. 분석방법 ····· 31

나. 분석결과 ····· 33

다. 시사점 ····· 35

Ⅴ. 제주농촌지역 인구유입 요인 분석과 삶의 질 강화방안 ····· 36

가. 분석방법 ····· 37

나. 분석결과 ····· 40

다. 시사점 ····· 5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Ⅵ. 요약 및 결론 ····· 57

참 고 문 헌 ····· 60

<부 록> ····· 6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1> OECD주요국 합계출산율 ····· 2
<표 2> 9개 도 연도별 합계출산율 ····· 4
<표 3> 제주지역 및 전국 인구현황 ····· 9
<표 4>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현황 ····· 10
<표 5> 제주지역 순이동자수 ····· 12
<표 6> 제주지역 인구규모 ····· 13
<표 7> 읍면지역 인구추이 및 비중 ····· 14
<표 8> 제주시 동지역 인구추이 및 비중 ····· 15
<표 9> 도별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 17
<표 10> 제주지역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 18
<표 11> 읍면지역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 19
<표 12> 동지역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 20
<표 13> 제주지역 귀농·귀촌 현황 ····· 22
<표 14> 제주지역으로 이주한 동기 ····· 23
<표 15> 농촌인구 중장기 전망 ····· 28
<표 16> 읍부인구 및 면부인구 중장기 전망 ····· 29
<표 17> 농촌인구 비중 ····· 30
<표 18> 산업별 종사자 수 ····· 33
<표 19> 지역소득 ····· 33
<표 20> 제주지역 농업부문 입지계수(종사자 수 기준) ····· 34
<표 21> 제주지역 농업부문 입지계수(부가가치 기준) ····· 34
<표 22> 쌍대비교 척도 ····· 38
<표 23> 무작위 일관성 지수 ····· 39
<표 24>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 40
<표 25> 전문가 그룹의 1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 4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6>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사회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 42
<표 27> 전문가 그룹의 1계층 사회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 43
<표 28>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경제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 44
<표 29> 전문가 그룹의 1계층 경제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 45
<표 30>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환경적 요인의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 47
<표 31> 전문가 그룹의 1계층 환경적 요인의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 48
<표 32>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정책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 49
<표 33> 전문가 그룹의 1계층 정책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 50
<표 34> 귀농·귀촌인 그룹의 삶의 질 향상 요인 평가기준의 중요도 종합 ····· 52
<표 35> 전문가 그룹의 삶의 질 향상 요인 평가기준의 중요도 종합 ····· 5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 림 목 차

<그림 1>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추이 ····· 3
<그림 2> 제주지역 연령별 인구 비중 ····· 11
<그림 3> 그룹별 1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 ····· 41
<그림 4> 그룹별 1계층 사회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 43
<그림 5> 그룹별 1계층 경제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 46
<그림 6> 그룹별 1계층 환경적요인에 대한 중요도 ····· 48
<그림 7> 그룹별 1계층 정책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 5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였다. 1980년대 이후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8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감소율을 보인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후 신혼부부 주거지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아이 돌봄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고,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 조정하였다. [1] 또한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2]

<표 1> OECD주요국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19	연평균 증감률
한국	**2.92**	**1.57**	**1.47**	**1.08**	**1.27**	**1.24**	**0.92**	**−2.85**
독일	1.51	1.43	1.35	1.35	1.36	1.43	1.54	0.05
덴마크	1.68	1.54	1.60	1.68	1.82	1.78	1.70	0.03
이탈리아	1.89	1.35	1.22	1.31	1.44	1.42	1.27	−0.99
일본	1.83	1.65	1.37	1.30	1.34	1.41	1.36	−0.74
영국	1.73	1.84	1.74	1.66	1.86	1.87	1.63	−0.15
프랑스	1.86	1.80	1.76	1.88	1.98	1.98	1.83	−0.04
미국	1.77	1.91	2.00	2.04	2.06	1.88	1.71	−0.09
노르웨이	1.81	1.80	1.86	1.81	1.92	1.82	1.53	−0.42
폴란드	2.23	2.16	1.51	1.26	1.37	1.33	1.42	−1.12
스페인	2.55	1.46	1.19	1.28	1.45	1.33	1.23	−1.81
스위스	1.54	1.55	1.48	1.41	1.47	1.53	1.48	−0.10
호주	1.99	1.86	1.79	1.77	1.95	1.89	1.66	−0.45
뉴질랜드	2.18	2.03	1.95	1.95	2.14	2.04	1.72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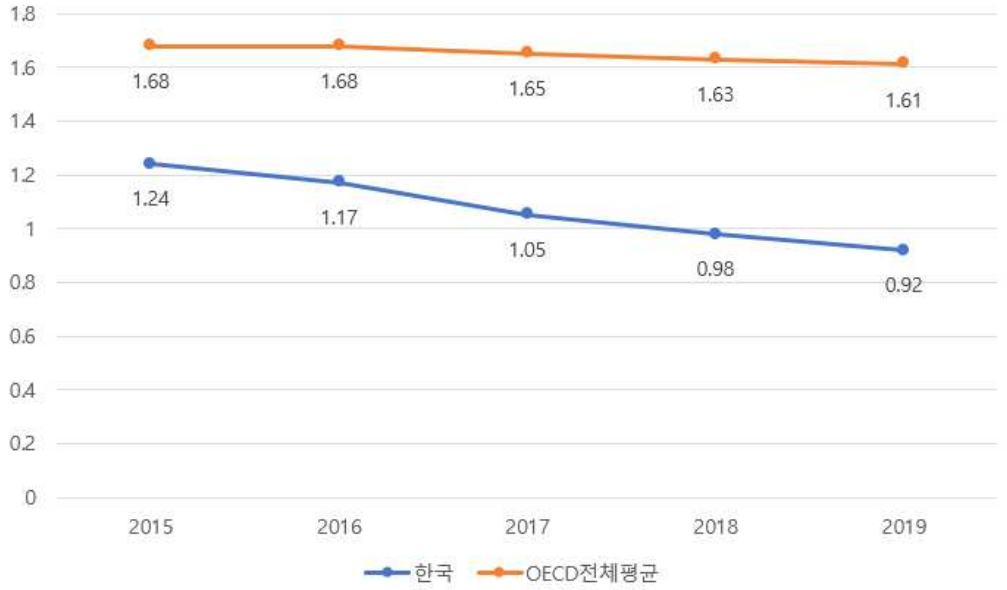
주: 1) 한국(1980년, 1990년)과 OECD주요국(1980~2019년) 자료는 국가통계 포털의 자료를 참고함.
2) 2000년 이후의 한국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참고함.
자료: 통계청, OECD 합계출산율

1) 국회기록보존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 2019
2)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년 5월 기준 지역 소멸위험지수_v2, 2020.07.0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 OECD 합계출산율

9개 도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 9개도의 합계출산율은 1명 이상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강원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0명대를 기록했고, 1명대를 유지하는 5개 도 역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 9개 도 연도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평균		1.172	1.052	0.977	0.918	0.837
경기도		1.194	1.069	1.002	0.943	0.878
강원도		1.237	1.123	1.067	1.082	1.036
충청북도		1.358	1.235	1.172	1.050	0.983
충청남도		1.395	1.276	1.186	1.112	1.029
전라북도		1.251	1.151	1.044	0.971	0.909
전라남도		1.466	1.325	1.240	1.234	1.145
경상북도		1.396	1.256	1.167	1.089	1.003
경상남도		1.358	1.227	1.122	1.046	0.945
제주특별자치도		1.432	1.305	1.220	1.145	1.021
	제주시	1.435	1.301	1.264	1.150	1.035
	서귀포시	1.422	1.318	1.081	1.130	0.977

자료: 통계청, 연도별 합계출산율

그러나 제주지역은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인구는 2010년 531,905명에서 2020년 670,858명으로 연평균 2.35%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면지역의 인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제주지역 인구증가는 도시와 농어촌에 고루 이주하고 가족 단위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귀포 지역으로의 순 유입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염미경, 2019)

현재까지 제주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제주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농업 분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제주 읍면지역의 인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증가하고 있으나 유입되는 인구 모두가 농업을 위해 이주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인구를 전망하여 전반적인 제주 읍면지역의 인구 변화를 살펴본 후, 이에 따른 농업 부문의 변화를 분석한 후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30년까지 제주 농촌지역의 인구를 전망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사람들이 제주지역에 이주하는지, 그리고 향후 제주 농촌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코호트 요인법을 사용하여 2030년까지의 제주 농촌지역 인구를 전망 분석한 이후 제주지역 농업의 입지변화 및 집중도를 살펴보고,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김배성 외(2007)는 코호트 방법을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지역의 5세 단위 내·외국인 인구를 전망하고, 농촌지역 인구구조와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2020년까지 농촌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초고령 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외국인과 아동인구 비중이 최대 절반 가까이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오은열 외(2016)는 지역 인구이동 변화요인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과 교육적 요인이 주된 지역 인구이동 변화요인으로 나타났다.

홍성효 외(2012)는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0대 중반의 경우 기대소득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81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사회복지가 보장되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정요인은 수도권, 비수도권과 도시 내 이주, 농촌 내 이주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찬영(2018)은 연령대별 인구 유출입 요인을 지역 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비수도권의 20대는 기대소득, 문화, 의료, 교육요인의 여건이 높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며, 30대부터 50대의 연령대는 전세가격, 사회복지시설 수, 교통 인프라, 문화시설 요인에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태호(2019)는 제주지역 순 인구가 증가함을 언급하면서, 제주지역 인구 유출입 실태를 분석하고 인구 정책을 위한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입인구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 구조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생산연령인구 확대를 위해 20대~40대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부혜진(2015)은 제주도 촌락 지역의 귀농·귀촌 인구증가에 따른 변화를 문헌 분석, 통계자료 분석, 위성사진 분석, 현지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촌락 지역 대부분이 농가였으나 귀농·귀촌 가구가 들어오며 비 농업 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청년회 등의 마을조직은 서로 다른 직장과 거주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조직문화를 형성하였다.

김민영 외(2015)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제주 이주 유형을 귀농·귀촌, 창업, 기업 이전, 문화·예술 정착, 교육 5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서귀포시 농촌지역을 선택하여 제주시 동지역의 인구 집중화를 완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기업 이전, 교육 두 가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귀농·귀촌 유형의 정착자들은 경제적인 요인보다 삶의 지향 변화를 위한 이주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용 외(2014)는 SAS통계패키지와 Netminer 3.0을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현황과 지역구조변화를 분석하였고, 인구이동은 지역 간, 지역 내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는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순이동이 많고, 이동자들은 주로 경제적 기회와 주택 등의 도시환경에 따라 움직이며, 주로 경제적 기회, 주택 등 도시환경의 사유에 따라 이동하였다. 제주지역의 인구이동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지역 내 이동 비율이 높고, 이동 요인은 직업, 주택, 가족 요인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노형동, 연동, 일도이동, 이도이동을 중심으로, 서귀포는 동홍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형성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주시의 집중성이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제주지역의 지역 공간구조 변화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한 경우가 많고, 이를 활용하여 인구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농촌 경쟁력과 관련한 연구는 농업 총조사, 농가당 경지면적 등 전반적인 농업과 연관되어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인구를 전망하고, 제주 농촌지역으로의 유입인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이주하는지 분석 후 이들이 잘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제주지역 인구 현황

가. 제주지역 인구추이

제주지역은 2006년 국제자유도시 지정 이후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탈도시화 열풍에 힘입어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 유입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였다.(염미경, 2019) 그러나 2016년 이후 인구 유입이 서서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증가 정도가 전년 대비 0.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인구의 자연증가 규모가 감소하고 제주 이주 열풍이 식으면서 유입인구마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의 경우 인구 증가 폭이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 제주지역 및 전국 인구현황

단위: 명, %

구 분	제주전체		전국	
	인구	전년대비	인구	전년대비
1980	462,941	-	37,436,315	-
1990	514,605	11.2	43,410,899	16.0
2000	513,260	-0.3	46,136,101	6.3
2010	531,905	3.6	48,580,293	5.3
2015	605,619	13.9	51,069,375	5.1
2016	641,597	2.8	51,696,216	0.3
2017	657,083	2.4	51,778,544	0.2
2018	667,191	1.5	51,826,059	0.1
2019	670,989	0.6	51,849,861	0.1
2020	674,635	0.5	51,829,023	-0.04

주: 1990년, 2000년, 2010년의 전년대비 비율은 각각 10년 전 수치와의 비교값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제주지역 전체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67,191명에서 2020년 674,635명으로 연평균 0.6% 증가하였다.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다. 유소년인구는 2016년 98,117명에서 2020년 95,789명으로 비중은 15.3%에서 14.2%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454,291명에서 2020년 472,692명으로, 비중은 70.8%에서 70.1%로 감소한다. 고령인구는 2016년 89,189명에서 2020년 106,154명으로 비중은 13.9%에서 15.7%로 증가한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읍지역은 2018년 152,388명에서 2020년 154,986명으로 연평균 0.8% 증가하였으나 면지역은 2018년 36,986명에서 2020년 36,753명으로 연평균 0.3% 감소하였다. 동지역은 2018년 477,817명에서 2020년 482,896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읍지역의 유소년인구는 2018년 18,816명에서 2020년 18,994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한 반면, 고령인구는 2018년 30,014명에서 2020년 32,451명으로 연평균 4.0% 증가하였다. 또한, 면지역의 유소년인구는 2018년 3,753명에서 2020년 3,729명으로 연평균 0.3%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2018년 8,234명에서 2020년 8,741명으로 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지역 모두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지역도 면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역과 마찬가지로 유소년인구는 2018년 75,692명에서 2020년 73,066명으로 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2018년 57,921명에서 2020년 64,861명으로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도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제주 전체		성별	남자	335,719	337,345	338,609	0.4
			여자	331,472	333,644	336,026	0.7
		연령	유소년인구	98,261	96,889	95,789	−1.3
			생산연령인구	472,723	473,703	472,692	0.0
			고령인구	96,207	100,397	106,154	5.0
		전체		667,191	670,989	674,635	0.6
읍면지역	읍지역	성별	남자	78,103	78,680	79,171	0.7
			여자	74,285	74,973	75,815	1.0
		연령	유소년인구	18,816	18,696	18,994	0.5
			생산연령인구	104,402	104,794	104,432	0.0
			고령인구	30,014	31,037	32,451	4.0
		전체		152,388	153,653	154,986	0.8
	면지역	성별	남자	19,043	19,016	18,846	−0.5
			여자	17,943	17,923	17,907	−0.1
		연령	유소년인구	3,753	3,729	3,729	−0.3
			생산연령인구	24,999	24,716	24,283	−1.4
			고령인구	8,234	8,494	8,741	3.0
		전체		36,986	36,939	36,753	−0.3
동지역		성별	남자	238,573	239,649	240,592	0.4
			여자	239,244	240,748	242,304	0.6
		연령	유소년인구	75,692	74,464	73,066	−1.7
			생산연령인구	344,166	345,067	344,868	0.1
			고령인구	57,921	60,821	64,861	5.8
		전체		477,817	480,397	482,89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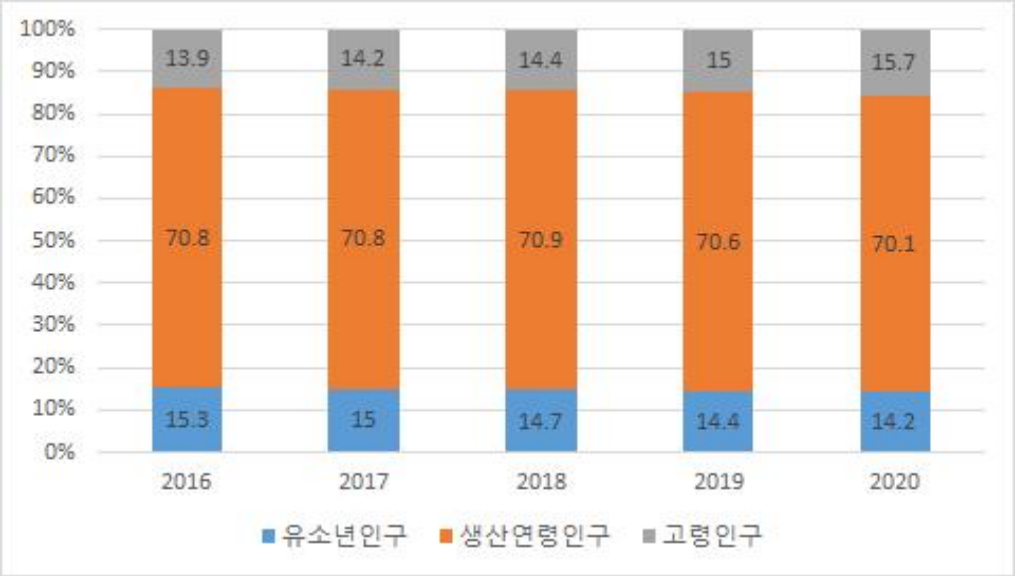
주: *,**,***는 각각 유소년 인구(0세~14세),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2> 제주지역 연령별 인구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제주지역 전체 순이동자수는 2016년 14,632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991명이나 여전히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의 경우 2010년은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았으나 이후 유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485명의 순이동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귀포시 동지역 인구의 누락으로 인하여 읍면지역의 순이동자수만 산출된 값으로, 동지역 순이동자수를 더하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5> 제주지역 순이동자수

단위: 명

구 분		2010	2013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주전체	전체	437	7,823	14,632	14,005	8,853	2,936	2,991
	동지역	−165	7,571	8,506	5,991	4,506	1,168	1,198
	읍면지역	932	252	6,126	8,014	4,347	1,768	1,793
제주시	전체	767	6,370	8,539	6,643	5,877	2,458	2,506
	동지역	−165	6,437	5,175	2,072	2,776	947	1,198
	읍면지역	932	−67	3,364	4,571	3,101	1,511	1,308
서귀포시	전체	−330	1,453	6,093	7,362	2,976	478	485
	동지역	163	1,134	3,331	3,919	1,730	221	−
	읍면지역	−493	319	2,762	3,443	1,246	257	485

자료: 통계청, [참고] 읍면동별 이동경계별 이동자수 자료 재구성

제주지역의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62.7%에서 2020년 73.0%로 증가하였고 서귀포시의 비중은 1980년 37.3%에서 2020년 27.0%로 감소함으로써 제주시 지역으로 인구가 편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6> 제주지역 인구규모

단위: 명, %

구 분	제주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인구	비중	인구	비중
1980	462,941	290,116	62.7	172,825	37.3
1990	514,605	341,482	66.4	173,123	33.6
2000	513,260	367,364	71.6	145,896	28.4
2010	531,905	401,192	75.4	130,713	24.6
2015	605,619	451,758	74.6	153,861	25.4
2016	641,597	470,665	73.4	170,932	26.6
2017	657,083	478,700	72.9	178,383	27.1
2018	667,191	485,946	72.8	181,245	27.2
2019	670,989	489,405	72.9	181,584	27.1
2020	674,635	492,466	73.0	182,169	27.0

주: 2010년 이전 자료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 편입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읍면지역의 경우 추자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2010년 대비 2020년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애월읍이 2.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대정읍 2.7% 증가, 안덕면 2.2% 증가, 조천읍 1.9% 증가, 표선면 1.3% 증가 순이었다. 추자면은 유일하게 4.0% 감소하였다.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애월읍의 인구 비중이 4.9%에서 7.5%로 2.6%p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로 조천읍의 인구 비중이 3.4%에서 5.1%로 1.7%p 증가하였고, 한림읍이 0.9%p, 구좌읍이 0.6%p, 우도면은 2016년과 2020년의 인구 비중이 동일하였다. 한경면과 추자면은 각각 0.1%씩 미약하게 감소하였다. 읍면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애월읍, 안덕면 등 증가 폭이 큰 지역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어 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천읍과 같이 동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읍면지역의 인구는 지역개발 혹은 동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7> 읍면지역 인구추이 및 비중

단위: 명, %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한림읍	19,470 (3.4)	19,827 (3.2)	20,461 (3.2)	20,867 (3.2)	21,309 (3.2)	21,365 (3.2)	21,249 (3.1)	0.9
애월읍	27,912 (4.9)	30,944 (5.0)	32,162 (5.0)	34,051 (5.2)	35,451 (5.3)	36,233 (5.4)	36,913 (5.5)	2.8
구좌읍	14,841 (2.6)	14,746 (2.4)	15,065 (2.3)	15,504 (2.4)	15,670 (2.3)	15,589 (2.3)	15,546 (2.3)	0.5
조천읍	21,061 (3.7)	21,065 (3.4)	21,991 (3.4)	23,299 (3.5)	24,106 (3.6)	24,670 (3.7)	25,339 (3.8)	1.9
한경면	8,232 (1.4)	8,516 (1.4)	8,745 (1.4)	8,930 (1.4)	9,089 (1.4)	9,037 (1.3)	9,029 (1.3)	0.9
추자면	2,535 (0.4)	2,022 (0.3)	1,906 (0.3)	1,862 (0.3)	1,804 (0.3)	1,733 (0.3)	1,677 (0.2)	−4.0
우도면	1,575 (0.3)	1,710 (0.3)	1,788 (0.3)	1,871 (0.3)	1,852 (0.3)	1,862 (0.3)	1,740 (0.3)	1.0
대정읍	16,703 (2.9)	18,492 (3.0)	19,685 (3.1)	21,045 (3.2)	21,364 (3.2)	21,334 (3.2)	21,761 (3.2)	2.7
남원읍	18,193 (3.2)	18,650 (3.0)	19,151 (3.0)	19,160 (2.9)	19,038 (2.9)	18,905 (2.8)	18,766 (2.8)	0.3
성산읍	14,109 (2.5)	14,388 (2.3)	14,857 (2.3)	15,287 (2.3)	15,450 (2.3)	15,557 (2.3)	15,412 (2.3)	0.9
안덕면	9,636 (1.7)	10,118 (1.6)	10,416 (1.6)	11,367 (1.7)	11,867 (1.8)	12,023 (1.8)	11,982 (1.8)	2.2
표선면	10,868 (1.9)	11,433 (1.8)	11,689 (1.8)	12,220 (1.9)	12,374 (1.9)	12,284 (1.8)	12,325 (1.8)	1.3

주: 괄호안은 연도별 전체인구 중 해당 지역 비중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 인구수

동지역의 2010년 대비 2020년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아라동이 연평균 10.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오라동이 9.4%, 삼양동 8.8%, 대천동 7.2%, 봉개동 5.6%, 대륜동 4.8%, 외도동 3.8% 순이었다. 이도, 일도, 삼도, 용담동 등 원도심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주거시설이 새로이 들어선 오라동, 아라동 등에는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에 의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대천동과 대륜동의 경우 각각 7.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노형동이 8%대로 가장 높은 인구집중도를 보였고 이도이동 7%대, 연동 6%대이다. 앞서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높은 인구증가세를 보였던 아라동은 2010년 2.4%에서 2020년 5.5%로 3.1%p 증가하였다.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송산동, 중앙동, 정방동의 비중은 모두 2010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지역 역시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제주시 동지역 인구추이 및 비중

단위: 명, %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일도1동	3,854 (0.7)	3,417 (0.5)	3,281 (0.5)	3,100 (0.5)	2,884 (0.4)	2,724 (0.4)	2,584 (0.4)	−3.9
일도2동	38,397 (6.7)	36,481 (5.8)	35,776 (5.6)	35,242 (5.2)	34,388 (5.0)	33,683 (5.0)	33,062 (4.9)	−1.5
이도1동	7,747 (1.4)	7,987 (1.3)	7,917 (1.2)	7,929 (1.2)	7,851 (1.2)	7,649 (1.1)	7,683 (1.1)	−0.1
이도2동	42,475 (7.4)	51,565 (8.3)	51,173 (8.0)	50,467 (7.5)	49,456 (7.2)	49,964 (7.4)	49,834 (7.4)	1.6
삼도1동	14,244 (2.5)	14,684 (2.4)	14,830 (2.3)	14,519 (2.2)	14,190 (2.1)	13,854 (2.1)	13,586 (2.0)	−0.5
삼도2동	9,793 (1.7)	9,123 (1.5)	8,943 (1.4)	8,717 (1.3)	8,397 (1.3)	8,174 (1.2)	8,005 (1.2)	−2.0
용담1동	8,866 (1.6)	8,363 (1.3)	8,003 (1.2)	7,843 (1.2)	7,527 (1.1)	7,225 (1.1)	7,050 (1.0)	−2.3
용담2동	17,370 (3.0)	16,594 (2.7)	16,209 (2.5)	15,821 (2.4)	15,426 (2.3)	15,074 (2.2)	14,798 (2.2)	−1.6
건입동	11,002 (1.9)	10,112 (1.6)	9,995 (1.6)	9,867 (1.5)	9,610 (1.4)	9,311 (1.4)	9,091 (1.3)	−1.9
화북동	19,899 (3.5)	26,050 (4.2)	25,710 (4.0)	25,448 (3.8)	24,985 (3.7)	24,855 (3.7)	24,456 (3.6)	2.1
삼양동	11,149 (2.0)	17,235 (2.8)	21,606 (3.4)	22,740 (3.4)	24,897 (3.6)	25,702 (3.8)	25,837 (3.8)	8.8
봉개동	3,053 (0.5)	3,160 (0.5)	3,484 (0.5)	3,885 (0.6)	4,842 (0.7)	5,270 (0.8)	5,285 (0.8)	5.6
아라동	13,692 (2.4)	24,123 (3.9)	27,295 (4.3)	30,128 (4.6)	33,099 (5.0)	34,806 (5.2)	37,070 (5.5)	10.5
오라동	6,391 (1.1)	10,003 (1.6)	11,822 (1.8)	13,514 (2.0)	14,673 (2.2)	15,334 (2.3)	15,746 (2.3)	9.4
연동	41,332	43,148	42,419	41,810	41,397	41,513	41,910	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2)	(6.9)	(6.6)	(6.4)	(6.2)	(6.2)	(6.2)	
노형동	50,638 (8.9)	53,491 (8.6)	53,524 (8.3)	53,433 (8.1)	54,002 (8.1)	54,222 (8.1)	55,087 (8.2)	0.8
외도동	15,157 (2.7)	18,699 (3.0)	19,675 (3.1)	20,697 (3.1)	21,445 (3.1)	21,801 (3.2)	22,055 (3.3)	3.8
이호동	4,082 (0.7)	3,973 (0.6)	3,967 (0.6)	4,151 (0.6)	4,495 (0.7)	4,569 (0.7)	4,572 (0.7)	1.1
도두동	2,772 (0.5)	2,838 (0.5)	2,918 (0.5)	3,005 (0.5)	3,101 (0.5)	3,186 (0.5)	3,262 (0.5)	1.6
송산동	5,061 (0.9)	4,831 (0.8)	4,645 (0.7)	4,474 (0.7)	4,417 (0.7)	4,286 (0.6)	4,171 (0.6)	−1.9
정방동	2,968 (0.5)	2,745 (0.4)	2,641 (0.4)	2,456 (0.4)	2,333 (0.3)	2,276 (0.3)	2,196 (0.3)	−3.0
중앙동	4,592 (0.8)	4,383 (0.7)	4,243 (0.7)	4,003 (0.6)	3,879 (0.6)	3,705 (0.5)	3,519 (0.5)	−2.6
천지동	3,889 (0.7)	3,900 (0.6)	3,798 (0.6)	3,571 (0.5)	3,570 (0.5)	3,544 (0.5)	3,524 (0.5)	−1.0
효돈동	5,000 (0.9)	5,108 (0.8)	5,193 (0.8)	5,320 (0.8)	5,278 (0.8)	5,291 (0.8)	5,253 (0.8)	0.5
영천동	5,037 (0.9)	5,029 (0.8)	4,997 (0.8)	5,178 (0.8)	5,292 (0.8)	5,289 (0.8)	5,199 (0.8)	0.3
동홍동	21,031 (3.7)	22,625 (3.6)	22,806 (3.6)	22,680 (3.5)	22,885 (3.4)	23,118 (3.4)	23,233 (3.4)	1.0
서홍동	7,988 (1.4)	10,034 (1.6)	10,530 (1.6)	10,629 (1.6)	10,570 (1.6)	10,433 (1.6)	10,618 (1.6)	2.9
대륜동	9,214 (1.6)	11,192 (1.8)	13,271 (2.1)	13,389 (2.0)	13,958 (2.1)	14,443 (2.2)	14,765 (2.2)	4.8
대천동	6,937 (1.2)	8,103 (1.3)	8,980 (1.4)	12,993 (2.0)	13,675 (2.0)	13,785 (2.1)	13,921 (2.1)	7.2
중문동	8,916 (1.6)	9,738 (1.6)	10,217 (1.6)	10,684 (1.6)	11,159 (1.7)	11,337 (1.7)	11,586 (1.7)	2.7
예래동	3,574 (0.6)	3,750 (0.6)	3,813 (0.6)	3,927 (0.6)	4,136 (0.6)	3,974 (0.6)	3,938 (0.6)	1.0

주: 괄호안은 연도별 전체인구 중 해당 지역 비중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나. 제주지역 출생아 및 사망자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10년 5,657명에서 2020년 3,989명으로 연평균 3.4%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사망자 수는 2010년 3,017명에서 2020년 3,95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명으로 연평균 2.7% 증가세를 보였다. 자연증가가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총인구는 증가하여, 제주지역의 인구증가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도별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

구 분	출생아 수		연평균증감률	사망자 수		연평균증감률
	2010	2020		2010	2020	
제주	5,657	3,989	−3.4	3,017	3,952	2.7
경기	121,753	77,737	−4.4	47,687	62,794	2.8
강원	12,477	7,835	−4.5	10,729	12,182	1.3
충북	14,670	8,607	−5.2	9,825	11,594	1.7
충남	20,242	11,950	−5.1	14,014	16,022	1.3
전북	16,100	8,165	−6.6	13,188	14,691	1.1
전남	16,654	9,738	−5.2	16,042	17,436	0.8
경북	23,700	12,873	−5.9	20,249	22,799	1.2
경남	32,203	16,823	−6.3	19,502	22,881	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연평균 2.9% 감소하여 제주시 동지역보다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의 경우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598명에서 314명으로 연평균 6.2%씩 감소하여 제주시 읍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0> 제주지역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

구 분		출생아 수		연평균증감률	사망자 수		연평균증감률
		2010	2020		2010	2020	
제주시	동지역	3,343	2,527	−2.8	1,332	1,786	3.0
	읍면지역	898	548	−4.8	738	929	2.3
서귀포시	동지역	808	600	−2.9	437	562	2.5
	읍면지역	598	314	−6.2	510	675	2.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전체 출생아 수는 2010년 1,496명에서 2020년 862명으로 연평균 5.4%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추자면이 22.0%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우도면은 11.1%, 표선면 9.0%, 구좌읍 7.6% 순이다. 우도면의 경우 2019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20년 출생아 수는 한 자릿수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10년 1,248명에서 2020년 1,604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선면이 연평균 5.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남원읍 4.4%, 조천읍 4.2%, 애월읍 3.0% 순이다. 따라서 읍면지역의 경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자연적 요인에 의한 증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1> 읍면지역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한림읍	167	149	130	187	136	170	102	197	120	187	97	200	97	172	-5.3	1.4
애월읍	283	183	238	189	257	240	216	292	216	246	205	243	208	245	-3.0	3.0
구좌읍	146	148	96	149	85	151	71	145	66	159	80	148	66	176	-7.6	1.7
조천읍	187	126	153	134	139	172	138	147	146	162	118	183	129	190	-3.6	4.2
한경면	78	91	52	71	54	88	41	100	46	99	47	111	42	113	-6.0	2.2
추자면	24	24	4	11	2	20	2	16	5	21	7	18	2	18	-22.0	-2.8
우도면	13	17	7	17	14	24	14	15	12	20	13	17	4	15	-11.1	-1.2
대정읍	123	146	111	153	116	132	109	161	90	157	98	178	82	162	-4.0	1.0
남원읍	165	113	140	137	109	145	95	123	76	166	89	151	82	174	-6.8	4.4
성산읍	107	115	81	118	78	116	80	123	70	148	68	148	60	150	-5.6	2.7
안덕면	103	83	72	80	71	89	70	108	65	95	63	92	51	99	-6.8	1.8
표선면	100	53	82	78	81	88	71	83	61	68	48	96	39	90	-9.0	5.4
합계	1,496	1,248	1,166	1,324	1,142	1,435	1,009	1,510	973	1,528	933	1,585	862	1,604	-5.4	2.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동지역 전체 출생아 수는 2010년 4,151명에서 2020년 3,127명으로 연평균 2.8% 감소하였다. 동지역은 읍면지역과 달리 출생아가 증가한 지역이 있는데, 봉개동(9.5%), 아라동(8.5%), 오라동(8.1%), 대천동(6.4%), 삼양동(5.7%), 대륜동(4.7%), 서홍동(0.6%) 등 총 7개 동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일도1동이 24.0%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정방동이 14.9%, 중앙동이 11.1%, 용담1동이 9.9% 순이다. 사망자 수는 2010년 1,769명에서 2020년 2,348명으로 연평균 2.9%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양동이 11.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대천동이 10.9%, 도두동이 6.2%, 이도1동이 5.6%, 오라동이 5.4% 순이다. 제주 동지역의 경우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제주지역에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동지역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출생	사망
일도1동	31	21	22	25	18	28	17	25	5	33	9	39	2	27	-24.0	2.5
일도2동	344	178	299	134	326	135	245	152	244	157	235	170	165	171	-7.1	-0.4
이도1동	66	40	61	53	42	58	42	53	45	55	37	43	27	69	-8.6	5.6
이도2동	419	133	606	171	523	150	459	220	391	191	342	207	270	213	-4.3	4.8
삼도1동	151	55	128	77	132	93	118	86	107	74	67	90	73	87	-7.0	4.7
삼도2동	97	53	65	67	68	57	39	60	56	72	34	53	46	60	-7.2	1.2
용담1동	82	52	56	56	61	56	36	56	37	50	33	60	29	63	-9.9	1.9
용담2동	179	85	130	84	116	111	107	109	95	102	93	103	69	99	-9.1	1.5
건입동	99	68	83	56	73	53	61	65	76	69	47	57	51	66	-6.4	-0.3
화북동	206	78	264	115	246	120	207	120	215	132	179	126	161	118	-2.4	4.2
삼양동	131	39	246	61	267	76	285	89	284	96	268	90	229	112	5.7	11.1
봉개동	25	31	17	20	30	33	31	35	54	29	72	28	62	31	9.5	0.0
아라동	147	104	280	116	346	120	373	144	396	145	387	147	332	141	8.5	3.1
오라동	76	42	150	48	174	49	241	43	207	60	187	50	166	71	8.1	5.4
연동	448	123	445	165	350	151	299	131	281	177	268	189	224	160	-6.7	2.7
노형동	543	139	504	148	478	168	402	171	353	184	318	175	348	176	-4.4	2.4
외도동	230	58	265	66	240	77	224	67	233	79	209	86	214	82	-0.7	3.5
이호동	35	22	38	22	25	21	21	24	32	38	46	21	36	20	0.3	-0.9
도두동	34	11	25	19	26	19	28	18	23	17	21	18	23	20	-3.8	6.2
송산동	43	41	38	43	29	47	25	53	17	32	13	33	17	40	-8.9	-0.2
정방동	25	16	14	13	12	17	15	21	7	18	13	20	5	19	-14.9	1.7
중앙동	42	20	20	29	30	30	16	19	18	31	16	32	13	26	-11.1	2.7
천지동	31	22	22	21	38	38	19	38	18	23	24	30	12	25	-9.1	1.3
효돈동	47	35	35	26	28	35	36	43	35	51	46	52	22	37	-7.3	0.6
영천동	40	46	25	52	20	62	20	47	28	41	17	60	19	55	-7.2	1.8
동홍동	236	76	209	96	177	104	191	83	123	109	140	89	131	89	-5.7	1.6
서홍동	66	38	127	39	109	42	94	41	70	56	71	47	70	55	0.6	3.8
대륜동	76	44	96	68	138	52	157	76	121	93	138	81	120	69	4.7	4.6
대천동	61	22	55	41	118	28	153	63	127	72	139	80	113	62	6.4	10.9
중문동	110	48	85	50	80	51	55	48	78	64	82	66	61	60	-5.7	2.3
예래동	31	29	24	30	32	26	12	28	32	33	16	32	17	25	-5.8	-1.5
합계	4,151	1,769	4,434	2,011	4,352	2,107	4,028	2,228	3,808	2,383	3,567	2,374	3,127	2,348	-2.8	2.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제주지역 귀농인 및 귀촌인

귀농은 농촌을 떠나 제2차, 제3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에 환류하거나 환류시키는 것을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불황으로 인해 실업한 노동력의 환류나 고령화로 퇴직한 자의 농촌 복귀를 의미한다. 귀촌은 농촌에 돌아와서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하는 것인데, 농촌을 주거지로 두어 전원생활을 꿈꾸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3] 즉,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귀촌이 귀농보다 넓은 개념으로, 귀농을 포괄하고 있다.

제주지역 연령대별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귀농과 관련한 인구는 감소하나 귀촌과 관련한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귀농·귀촌 인구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귀농의 경우 2013년 250명에서 2020년 231명으로 연평균 1.1% 감소하였으나 귀촌의 경우 2013년 6,627명에서 2020년 12,040명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귀농은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하였는데, 30대 이하가 연평균 3.5%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70대 이상(2.6%). 50대(2.2%) 감소 순이었다. 반면, 귀촌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0대가 연평균 1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50대(8.8%), 40대(8.6%), 30대 이하(8.4%) 순이었다. 따라서 제주지역으로의 이주는 귀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네이버, 사회복지학 사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3> 제주지역 귀농·귀촌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가구원수	계	448 (100.0)	4,777 (100.0)	770 (100.0)	8,391 (100.0)	572 (100.0)	9,473 (100.0)	422 (100.0)	9,590 (100.0)	320 (100.0)	8,427 (100.0)	336 (100.0)	8,632 (100.0)	-4.0	8.8
	30대 이하	167 (37.3)	1,914 (40.1)	220 (28.6)	2,186 (37.6)	170 (29.7)	2,471 (40.7)	134 (31.8)	2,496 (40.7)	83 (25.9)	2,040 (39.0)	110 (32.7)	2,076 (39.3)	-5.8	1.2
	40대	94 (21.0)	1,291 (27.0)	174 (22.6)	3,156 (27.4)	112 (19.6)	3,857 (27.5)	92 (21.8)	3,900 (26.1)	73 (22.8)	3,287 (26.3)	86 (25.6)	3,395 (25.5)	-1.3	14.8
	50대	116 (25.9)	944 (19.8)	219 (28.4)	2,297 (20.7)	175 (30.6)	2,602 (19.1)	116 (27.5)	2,499 (19.1)	98 (30.6)	2,219 (19.8)	85 (25.3)	2,205 (20.0)	-4.3	12.9
	60대	51 (11.4)	383 (8.0)	129 (16.8)	1,739 (9.7)	84 (14.7)	1,813 (8.4)	68 (16.1)	1,832 (9.7)	58 (18.1)	1,667 (10.1)	44 (13.1)	1,730 (10.8)	-2.1	24.0
	70대 이상	20 (4.5)	245 (5.1)	28 (3.6)	811 (4.6)	31 (5.4)	794 (4.3)	12 (2.8)	934 (4.4)	8 (2.5)	853 (4.8)	11 (3.3)	934 (4.3)	-8.2	21.1
인구수	계	250 (100.0)	6,627 (100.0)	511 (100.0)	11,937 (100.0)	369 (100.0)	13,445 (100.0)	281 (100.0)	13,411 (100.0)	238 (100.0)	11,618 (100.0)	231 (100.0)	12,040 (100.0)	-1.1	8.9
	30대 이하	45 (18.0)	3,206 (48.4)	71 (13.9)	5,543 (46.4)	54 (14.6)	6,560 (48.8)	42 (14.9)	6,488 (48.4)	31 (13.0)	5,386 (46.4)	35 (15.2)	5,645 (46.9)	-3.5	8.4
	40대	68 (27.2)	1,521 (23.0)	140 (27.4)	2,765 (23.2)	89 (24.1)	3,166 (23.5)	83 (29.5)	3,036 (22.6)	63 (26.5)	2,691 (23.2)	77 (33.3)	2,705 (22.5)	1.8	8.6
	50대	85 (34.0)	1,140 (17.2)	175 (34.2)	2,083 (17.4)	132 (35.8)	2,189 (16.3)	92 (32.7)	2,168 (16.2)	86 (36.1)	1,995 (17.2)	73 (31.6)	2,057 (17.1)	-2.2	8.8
	60대	40 (16.0)	476 (7.2)	103 (20.2)	1,048 (8.8)	73 (19.8)	993 (7.4)	57 (20.3)	1,176 (8.8)	52 (21.8)	1,042 (9.0)	36 (15.6)	1,141 (9.5)	-1.5	13.3
	70대 이상	12 (4.8)	284 (4.3)	22 (4.3)	498 (4.2)	21 (5.7)	537 (4.0)	7 (2.5)	543 (4.0)	6 (2.5)	504 (4.3)	10 (4.3)	492 (4.1)	-2.6	8.2
동반가구원수	계	198 (100.0)	1,850 (100.0)	259 (100.0)	1,850 (100.0)	203 (100.0)	2,240 (100.0)	141 (100.0)	3,199 (100.0)	82 (100.0)	3,546 (100.0)	105 (100.0)	3,972 (100.0)	-8.7	11.5
	30대 이하	122 (61.6)	1,292 (69.8)	149 (57.5)	1,292 (67.3)	116 (57.1)	1,507 (68.1)	92 (65.2)	2,127 (67.7)	52 (63.4)	2,387 (65.8)	75 (71.4)	2,703 (66.0)	-6.7	11.1
	40대	26 (13.1)	230 (12.4)	34 (13.1)	230 (13.2)	23 (11.3)	324 (14.2)	9 (6.4)	468 (14.1)	10 (12.2)	468 (14.8)	9 (8.6)	564 (14.7)	-14.1	13.7
	50대	31 (15.7)	196 (10.6)	44 (17.0)	196 (9.7)	43 (21.2)	220 (9.5)	24 (17.0)	331 (8.8)	12 (14.6)	344 (10.3)	12 (11.4)	376 (9.6)	-12.7	9.8
	60대	11 (5.6)	93 (5.0)	26 (10.0)	93 (6.7)	11 (5.4)	125 (5.0)	11 (7.8)	175 (6.3)	6 (7.3)	237 (5.9)	8 (7.6)	199 (6.1)	-4.4	11.5
	70대 이상	8 (4.0)	39 (2.1)	6 (2.3)	39 (3.1)	10 (4.9)	64 (3.3)	5 (3.5)	98 (3.1)	- -	110 (3.2)	- -	130 (3.6)	-	18.8

주: 괄호 안은 비중임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지역으로의 이주 사유를 살펴보면 새로운 주거 환경, 결혼 및 가족과 동반,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 건강·힐링을 위한 환경의 사유에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18년의 제주 이주는 회사 이직 또는 파견, 새로운 직업·사업 도전 등의 생계를 위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2019년과 2020년의 이주는 생계형 이주가 아닌 자연에서 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사유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제주지역으로 이주한 동기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회사 이직 또는 파견	24.1	23.0	18.3
새로운 직업·사업 도전	20.1	25.1	20.1
새로운 주거환경	15.5	16.3	16.1
결혼 및 가족과 동반	14.3	12.2	19.6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	9.2	9.1	9.6
건강·힐링을 위한 환경	8.5	9.8	9.6
자녀의 교육환경	5.1	1.5	4.0
퇴직 후 새로운 정착지	3.2	1.3	1.6
기타	-	1.8	1.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지 선택 사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제주 농촌지역 인구 전망 분석

가, 분석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에 대한 정의는 행정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농업농촌 기본법은 농촌을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촌을 읍면의 지역과, 이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각 행정기관들의 정의도 차이가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도시를 동지역, 농촌을 읍면지역으로 정의하였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도시를 시·읍지역, 농촌을 면지역으로 정의하였다. 통계청은 인구밀도가 3,000명/㎢ 이상인 기초단위구 또는 지목 기준 도시 토지 이용 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기초 단위구 중 1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총인구가 3,000명 이상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정의하고, 그 외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규정하였다. (김용렬 외, 2008) 따라서 본 논문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규정한 것과 같이 행정구역상 제주도의 읍면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농촌인구로 정의하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농촌지역 인구에 대해 연령별·성별 전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인구 관련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 총 조사와 주민등록인구가 있다. 인구 총 조사 자료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민등록인구 자료는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인구도 포함한다.(통계청)

본 논문의 인구 전망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주 농촌지역 인구를 코호트 요인법을 사용하여 전망하였다. 코호트 요인법은 가장 기초적인 인구방정식을 통한 방법으로, 매년 발생하는 출생과 사망, 국제 이동을 계산하여 장래의 인구를 전망하는 방법이다.(통계청)[4] 전망은 출산율, 생잔율, 이촌율을 고려하여 읍과 면단위, 그리고 연령별, 성별로 이루어졌다. 코호트 요인법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률을 연령과 성별, 그룹으로 분류하여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P_{t+1} = \sum_{i=1}^{N} [P_t^i - D_{t,t+1}^i + M_{t,t+1}^i] + B_{t,t+1}$$

P_{t+1}은 $t+1$기의 총인구를 나타내며, P_t^i는 t기의 i그룹에 해당하는 총인구수를 뜻한다. D_{t+1}^i는 t기에서 $t+1$기 사이의 i그룹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B_t^i는 t기와 $t+1$기 사이에서 출생한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출생아 수는 출산율과 가임여성 수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출산율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s)을 이용한다. 합계출산율은 15세~49세 여성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고, 합계출산율을 연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연령별 출산율이다.

$ASFR_t^k$는 t연도의 k연령그룹에 해당하는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 수를 k연령그룹에 속한 총 여성인구로 나눈 후, 1000으로 곱하여 계산한 값으로 t연도 k연령

4)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룹의 여성의 출산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5세~49세를 가임기 여성으로 설정하고 5세 간격으로 구분하였다.

$$ASFR_t^k = \frac{Babies_t^k}{Female\,population^k} \times 1000$$

사망률은 출생률을 구한 것과 동일하게 연령별, 성별에 따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에 따른 사망률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성별, 연령별에 해당하는 생잔율을 이용하였다. 생잔율은 어떤 한 연령층의 인구집단이 특정 기간 후에 살아남게 되는 확률, 즉 연령집단 별로 일정 기간에 나타난 출생자와 사망자를 계산하여 살아 있는 사람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5]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_k = 1 -$ 사망률

코호트 요인법에서의 인구 변화는 자연적 변화인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변화인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성주인, 2014) 본 연구에서는 김배성 외(2007)의 방법을 참고하여 인구 전망분석을 하였다. $\hat{P}_{2020}$는 합계출산율 $\hat{B}_{2015}$와 생잔율 $\hat{S}_{2015}$을 사용하여 구한 1차 추계치로, 이촌 인구를 감안하지 않은 값이다.

$$\widehat{P_{2020}} = (B_{2015} + S_{2015})P_{2015}$$

5) 포천시의회, 의회용어사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합계출산율 $\hat{B}_k$는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한 나라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로 활용된다. 합계출산율 $\hat{B}_k$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6)]

$$\widehat{B_k} = \frac{1년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15 \sim 49세)출생아수}{k\ 연도\ 여성의\ 연령별\ 연앙인구수} \div 1000$$

외부적으로 유 · 출입 되는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출산율과 생잔율만을 사용하여 인구를 추정한 후, 해당 연도의 실측인구와 추정 인구의 차이로 이촌 인구를 구할 수 있다.

$$M_k = P_k - \widehat{P_k}$$

여기서 M_k는 이촌 인구를 의미한다. 앞서 출산율과 생잔율을 이용하여 구한 값에 이촌 인구를 더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인구 추계치를 구하였다.

$$\widehat{P_{2020}} = (B_{2015} + S_{2015})P_{2015} + M_{2015}$$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주지역 인구를 전망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범위는 1992년부터 2020년까지의 읍면지역 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외국인은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는 제

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주도에서 제공하는 읍면별 구분 자료가 1992년부터 실재하며, 2000년대까지 읍면지역의 외국인 숫자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과 사망률은 2010년의 값을 사용하였고, 이촌율은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2010년부터 제주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1995년~2020년의 기간을 5년씩 나누어 20년, 15년, 10년, 5년의 자료를 계산하여 비교하였고, 그 결과 2020년 인구 전망은 가장 많이 증가한 2015년~2020년 이촌율 수치가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2025년과 2030년 인구 전망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이촌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분석하였다.

나. 분석결과

제주지역 농촌인구는 2020년 191,739명에서 2030년 206,14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남성은 2030년 106,480명으로 2020년 98,071명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여성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2030년 99,667명으로 2020년 93,722명 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5> 농촌인구 중장기 전망

단위: 명, %

구 분	농촌인구	연평균 증감률	남	연평균 증감률	여	연평균 증감률
2020	191,739	2.21	98,071	2.17	93,722	2.26
2025	199,919	0.62	102,856	0.74	97,063	0.48
2030	206,147	0.62	106,480	0.69	99,667	0.5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읍부와 면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읍부의 경우 2030년 166,954명으로 2020년 154,986명 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면부의 경우 2030년 39,193명으로 2020년 36,753명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망분석 결과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6> 읍부인구 및 면부인구 중장기 전망

단위: 명, %

구 분	읍부인구				면부인구			
	총인구	연평균 증감률	남	여	총인구	연평균 증감률	남	여
2020	154,986	2.3	79,171	75,815	36,753	1.7	18,846	17,907
2025	161,730	0.9	83,149	78,581	38,189	0.8	19,707	18,482
2030	166,954	0.6	86,383	80,571	39,193	0.5	20,097	19,096

농촌인구의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0~14세 인구는 2020년 10.7%에서 2030년 5.8%로 4.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5~64세 인구는 2020년 54.2%에서 2030년 38.8%로 15.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35.1%에서 2030년 55.4%로 20.3%p 증가하여 제주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7> 농촌인구 비중

단위: 명, %

구 분	제주전체	농촌인구	농촌지역 연령별 인구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20	673,177	191,739	10.7	54.2	35.1
2025	727,549	199,919	7.1	48.3	45.5
2030	784,326	206,147	5.8	38.8	55.4

다. 시사점

제주지역 농촌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30년 기준 206,147명으로, 제주 전체인구의 26.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분석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유소년으로 분류되는 0~14세 인구와 생산연령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2030년에 농촌지역의 5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농촌지역은 초고령화 사회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 인구의 감소는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제주지역 농업부문 입지계수 분석

앞서 인구 전망분석을 통해 제주 농촌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농업 비중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2장에서 살펴본 제주지역 인구는 택지가 개발되는 지역 혹은 동지역과 가까운 읍면지역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내에서 농업의 입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분석방법

입지계수(LQ)는 특정지역 산업의 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1940년대부터 경제학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었고, 특정 지역 내 특정 산업의 상대적 집중도나 특화 정도를 측정하여 기반산업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기법이다.(손용정, 2021) 해당 지역 내 특정 산업의 전국 점유율에 대한 지역 점유율의 비중을 나타내는 방법이며, 입지계수 값이 1보다 클 경우 그 지역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전국의 비율보다 높아 해당 산업이 전국보다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7] 1보다 작은 경우 전국보다 특화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므로 비 기반산업이라고 하고, 1인 경우에는 자립산업이라고 한다. 입지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LQ = \frac{\frac{V_{ij}}{V_j}}{\frac{V_i}{V}}$$

단, V_{ij}: j지역 I 산업의 부가가치(또는 취업자 수)

V_j: j지역 전 산업의 부가가치(또는 취업자 수)

V_i: 전국 I 산업의 부가가치(또는 취업자 수)

V: 전국 전 산업의 부가가치(또는 취업자 수)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의 전국 산업별 종사자 수, 지역 소득,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내 총생산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에 대한 입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7)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1권, 산업별 입지계수, 20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8> 산업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전체	14,742,739	15,339,865	16,027,236	16,920,383	17,362,903	17,736,224	18,198,793	18,743,650
	농업	27,839	30,250	32,258	35,794	36,190	37,343	38,750	40,577
제주	전체	154,632	167,869	174,032	186,620	193,123	197,120	206,046	215,166
	농업	1,745	2,070	2,175	2,109	2,081	2,181	2,217	2,210

자료: 통계청, 시군구별 산업별 종사자 수

<표 19> 지역소득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전체	1,393,860	1,439,847	1,483,406	1,523,607	1,566,502	1,615,648	1,664,573	1,704,231
	농업	30,060,779	31,374,217	33,095,772	33,229,204	31,374,753	31,958,788	32,088,872	33,304,894
제주	전체	13,090,778	13,744,213	14,592,500	15,558,857	16,734,492	17,516,293	17,466,509	17,686,075
	농업	1,838,061	1,867,349	1,780,209	1,715,518	1,814,901	1,873,293	1,638,278	1,615,727

주: 전국 전체는 총부가가치를 나타내며, 단위는 십억 원임.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총생산

나, 분석결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제주 전체 농업 종사자 수 입지계수는 4.74로 제주지역은 농업 부문에서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5.98에서 2019년 4.74로 농업의 입지는 줄어들어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2012년 3.13에서 2019년 3.42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서귀포시는 2012년 15.73에서 2019년 8.88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농업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제주지역 농업부문 입지계수(종사자 수 기준)

구 분	2012	2015	2017	2018	2019
제주전체	5.98	5.34	5.26	5.05	4.74
제주시	3.13	3.60	3.37	3.27	3.42
서귀포시	15.73	11.68	11.58	10.61	8.88

자료: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제주지역 전체 농업 부문 부가가치 입지계수는 2019년 기준 4.67로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농업 부문이 특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부가가치 입지계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 제주지역 농업부문 입지계수(부가가치 기준)

구 분	2012	2015	2017	2018	2019
제주전체	6.51	5.06	5.41	4.87	4.67
제주시	4.17	3.36	3.32	2.92	2.50
서귀포시	12.01	9.41	10.43	9.91	10.67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시사점

제주지역 농업 부문의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종사자 수 기준으로 2012년 5.98에서 2019년 4.74로,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2012년 6.51에서 2019년 4.67로 모두 입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농촌지역 유입인구가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귀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귀촌인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귀농인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 부문 입지 감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제주농촌지역 인구유입 요인 분석과 삶의 질 강화방안

앞서 제주지역 농촌인구에 대한 분석결과 출생에 의한 자연적 증가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에 의해 인구의 증감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 인구 전망분석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농업을 위한 '귀농' 보다는 전원생활을 즐기며 농업 외적인 부분을 위한 '귀촌' 을 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지계수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농업 입지가 약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입인구가 감소하고 전출인구가 증가하면서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는 2017년 대비 36.8% 감소한 상황이다.(고태호, 2019) 따라서 5장에서는 귀농·귀촌인 그룹 17명과 전문가그룹 17명의 AHP 분석을 통하여 각 그룹이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주를 결정하는지 비교 분석하고, 제주지역 유입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분석방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은 1970년대 Saaty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로써 평가지표 개발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AHP 분석은 의사 결정문제의 평가 기준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유사한 속성을 가진 평가지표 요인들을 분류하여 계층화하고, 각 계층에 속한 속성을 체계적으로 순위화시켜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AHP 분석은 단순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에 간편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요인과 주관적인 평가요인 모두를 수용하는 매우 유용한 의사결정 기법이다.

AHP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의사결정 할 것인지 결정하고 최상위 단계(목표), 중간단계(기준), 최하위 단계(대안)로 설정한다. 이후 관련된 평가 대상들을 분류하여 의사결정 계층 구조를 설정한다. 2단계에서는 각 계층의 의사결정 요소들 사이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행렬을 작성한다. n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계층에서, 항목 i가 j에 대하여 얼마나 더 중요한지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쌍대비교 행렬은 다음과 같다.

$$A = \begin{bmatrix} a_{11}\, a_{12\ldots}\, a_{1n} \\ a_{21}\, a_{22\ldots}\, a_{2n} \\ a_{31}\, a_{32\ldots}\, a_{3n} \end{bmatrix}$$

주: aij=1/aij, aii=1, $\forall$ i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2> 쌍대비교 척도

중요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중요	최종목표에 대해서 두 개의 요소가 비슷하게 중요함
3	약간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선호됨
5	상당히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 보다 강하게 선호됨
7	매우 강하게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 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9	절대적으로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으로 선호됨.

주: 위 값들의 중간값 2, 4, 5, 8도 동일하게 사용됨.

3단계에서 고유벡터법[8]을 이용하여 속성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w)를 추정함. 가중치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행렬 A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구함. 식에서 λ_{max}는 행렬 A의 가장 큰 고유치이며 이때 고유벡터 w를 구할 수 있다.

$$\sum_{j}^{n} a_{ij} \cdot w_j \cdot \frac{1}{w_i} = n$$

$$\sum_{j}^{n} a_{ij} \cdot w_j = n \cdot w_i$$

$$\hat{A} * \hat{w} = \lambda_{max} * \hat{w}$$

이후 쌍대비교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을 검정하기 위해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이용하여 일치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CI는 일관성이 완벽할 경우 0이 되며, 일관성이 떨어질수록 값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CI와 CR은 0.15 이하인 경우에만 분석에 이용한다.

8) 쌍대비교행렬로부터 각 계층 내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산술평균법, 기하 평균법, 최소자승법, 고유벡터 방법 4가지가 있다. 고유벡터 방법은 쌍대 비교행렬의 일치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I = \frac{(\lambda_{max} - n)}{(n-1)}, CR = (\frac{CI}{RI}) \times 100\%$$

주: RI(Random index): 무작위 일관성 지수

<표 23> 무작위 일관성 지수

행렬의 크기	무작위 일관성 지수
2	0
3	0.58
4	0.90
5	1.12
6	1.24
7	1.32
8	1.41
9	1.45
10	1.49

AHP 기법은 4가지 공리(公理, axioms)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역수 관계(reciprocal comparison)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 계층에 속한 두 대상에 대해 쌍대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중요성의 정도는 반드시 역조건을 성립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A가 B보다 2배 더 중요하다면, B는 A보다 1/2배 중요시되어야 한다. 둘째, 동질성(homogeneity)을 가져야 한다. 이는 각 계층의 중요도는 한정된 범위 내의 정해진 척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종속성(dependency)을 가져야 한다. 하위계층의 요소들은 상위계층의 요소들에 대해 종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기대성(expectation)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는 계층 구조 내에 속한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하위 계층부터 최상위 계층에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요인들이 속해야 하는 것이다.(황인건, 2005)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 17명과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17명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HP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의 분석 결과를 각각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귀농·귀촌인 그룹은 제주도에 정착하여 2년 이상 거주 중인 30대~60대 연령대의 이주인구들로 구성하였고, 전문가그룹은 제주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농업 발전 부문의 박사들로 구성하였다.

나, 분석결과

귀농·귀촌인 그룹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항목을 AHP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인 그룹에서의 1계층 상대적 중요도는 환경적 요인이 0.39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요인(0.28), 사회적 요인(0.21), 정책적 요인(0.12) 순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지수(CI)와 일관성 비율은 각각 0.00이므로 일관성 있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4>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합계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환경적요인	정책적요인	중요도
사회적요인	1.00	0.71	0.50	1.94	0.21
경제적요인	1.40	1.00	0.79	2.05	0.28
환경적요인	2.02	1.27	1.00	3.21	0.39
정책적요인	0.52	0.49	0.31	1.00	0.12
λ_{max}=4.01 CI=0.00 CR=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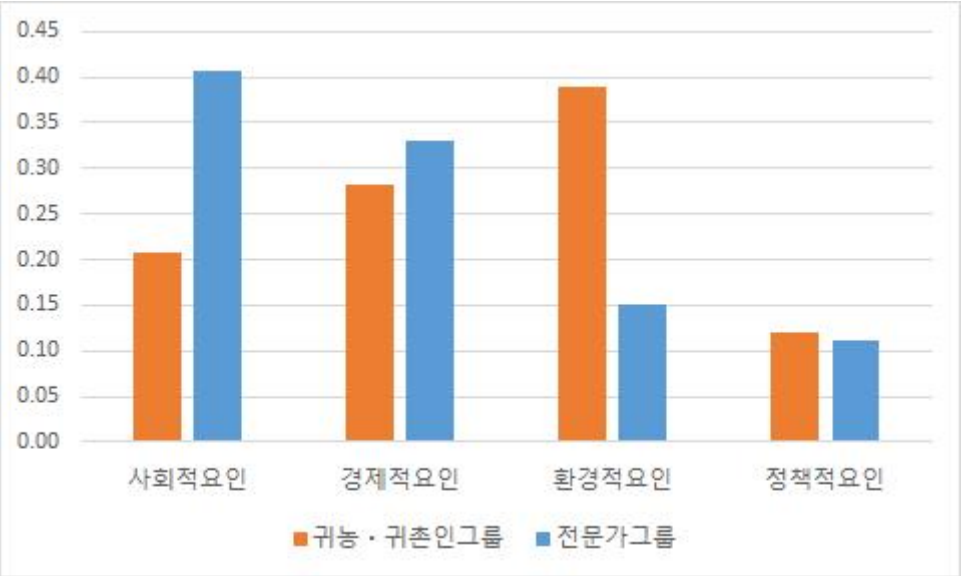
전문가그룹의 1계층 상대적 중요도는 사회적 요인이 0.41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요인(0.33), 환경적 요인(0.15), 정책적 요인(0.11)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인 그룹과는 차이를 보였다. 귀농·귀촌인 그룹은 환경적 요인을 사회적 요인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 전문가그룹은 사회적 요인을 환경적 요인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5> 전문가 그룹의 1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합계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환경적요인	정책적요인	중요도
사회적요인	1.00	1.07	3.35	3.41	0.41
경제적요인	0.94	1.00	1.53	3.69	0.33
환경적요인	0.30	0.65	1.00	1.18	0.15
정책적요인	0.29	0.27	0.85	1.00	0.11
λ_{max}=4.07 CI=0.02 CR=0.02					

<그림 3> 그룹별 1계층 상대적 중요도 분석



사회적 요인에 대한 2계층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인 그룹에서는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 조건이 0.28로 가장 높았고 거주지역 치안 수준(0.25),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0.24), 대중교통 편의성(0.15), 고향 또는 연고지(0.08)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 그룹은 귀농·귀촌 지역의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도심 근처를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향 또는 연고지 유무는 귀농·귀촌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6>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사회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합계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대중교통 편의성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고향 또는 연고지	거주지역 치안수준	중요도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1.00	1.76	1.20	3.82	1.19	0.28
대중교통 편의성	0.57	1.00	0.64	2.27	0.52	0.15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0.83	1.57	1.00	2.89	0.99	0.24
고향 또는 연고지	0.26	0.44	0.35	1.00	0.31	0.08
거주지역 치안수준	0.84	1.91	1.01	3.19	1.00	0.25
λ_{max}=5.01 CI=0.00 CR=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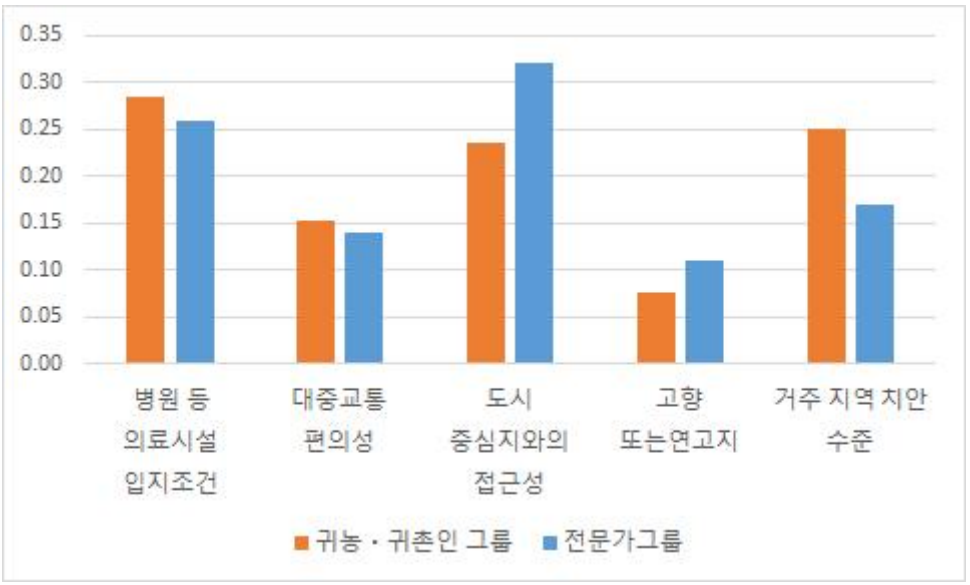
전문가그룹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2계층 상대적 중요도는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0.32로 가장 높았고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 조건(0.26), 거주지역 치안 수준(0.17), 대중교통 편의성(0.14), 고향 또는 연고지(0.1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그룹은 귀농・귀촌인 그룹과 마찬가지로 도시 중심지와 가까운 지리조건, 그리고 의료시설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7> 전문가그룹의 1계층 사회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합계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대중교통 편의성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고향 또는 연고지	거주지역 치안수준	중요도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1.00	1.68	0.83	2.40	1.60	0.26
대중교통 편의성	0.60	1.00	0.43	1.22	0.81	0.14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1.20	2.35	1.00	2.95	1.89	0.32
고향 또는 연고지	0.42	0.82	0.34	1.00	0.63	0.11
거주지역 치안수준	0.62	1.24	0.53	1.58	1.00	0.17
λ_{max}=5.00 CI=0.00 CR=0.00						

<그림 4> 그룹별 1계층 사회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계층 경제적 요인의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주택·토지가격이 0.42로 가장 높았고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0.24), 입지 지역의 생활물가(0.13),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0.13), 농지가격·농지임대료(0.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지역에 정착함에 있어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입지 지역의 물가 등 전반적인 요인보다 제일 필수적인 요인인 주택·토지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농지가격 농지임대료는 다섯 가지 항목 중 최하위에 속해 농업과 관련한 요인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을 위한 이주보다는 귀촌을 위한 이주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경제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합계	주택·토지 가격	농지가격 농지임대료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입지지역의 생활물가	중요도
주택·토지 가격	1.00	3.73	3.10	1.90	3.91	0.42
농지가격·농지임대료	0.27	1.00	0.60	0.37	0.61	0.09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0.32	1.66	1.00	0.50	0.80	0.13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0.53	2.73	1.98	1.00	1.87	0.24
입지지역의 생활물가	0.26	1.65	1.25	0.53	1.00	0.13
λ_{max}=5.04 CI=0.01 CR=0.01						

전문가그룹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2계층 상대적 중요도는 주택·토지가격이 0.40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0.20), 농외소득 창출 기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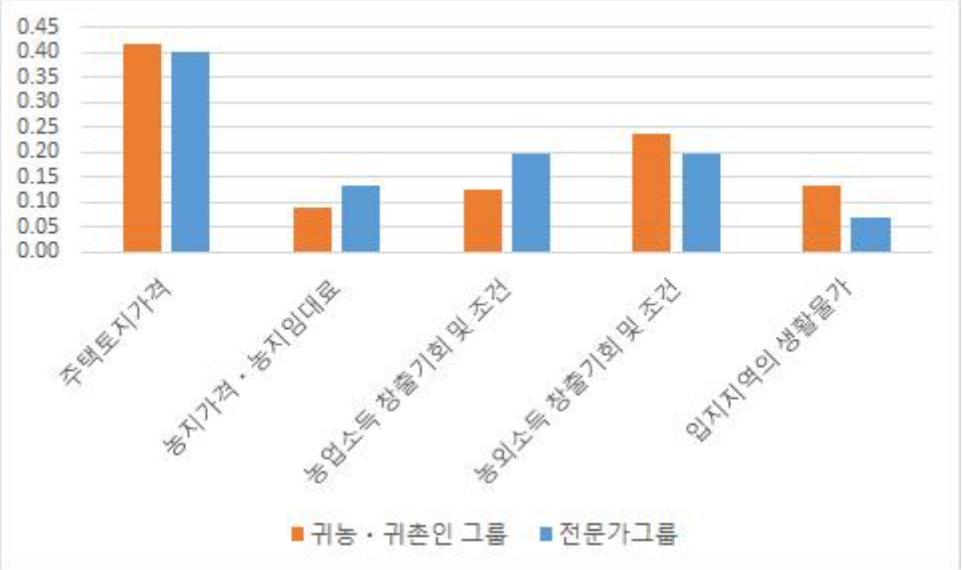
및 조건(0.20), 농지가격・농지임대료(0.13), 입지 지역의 생활물가(0.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그룹도 귀농・귀촌인 그룹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함에 있어 주택・토지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입지 지역의 물가 등 전반적인 요인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인 그룹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전문가 그룹의 1계층 경제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합계	주택·토지가격	농지가격 농지임대료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입지지역의 생활물가	중요도
주택·토지가격	1.00	2.49	2.03	2.49	5.44	0.40
농지가격·농지임대료	0.40	1.00	0.57	0.79	1.65	0.13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0.49	1.77	1.00	0.86	2.77	0.20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0.40	1.27	1.17	1.00	3.44	0.20
입지지역의 생활물가	0.18	0.61	0.36	0.29	1.00	0.07
λ_{max}=5.04 CI=0.01 CR=0.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5> 그룹별 1계층 경제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1계층 환경적 요인의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이 0.40으로 가장 높고, 자연생태 환경 보존 정도(0.21), 연간 기후조건(0.21), 입지 지역의 자연재해 빈도(0.12), 입지 지역의 전통문화 요소(0.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지가 아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농촌 생활을 결정하는데 해당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0>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환경적 요인의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합계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연간 기후조건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중요도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1.00	1.70	5.56	2.21	3.54	0.40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0.59	1.00	3.13	0.98	1.72	0.21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0.18	0.32	1.00	0.26	0.46	0.06
연간 기후조건	0.45	1.02	3.89	1.00	1.72	0.21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0.28	0.58	2.20	0.58	1.00	0.12
λ_{max}=5.02 CI=0.00 CR=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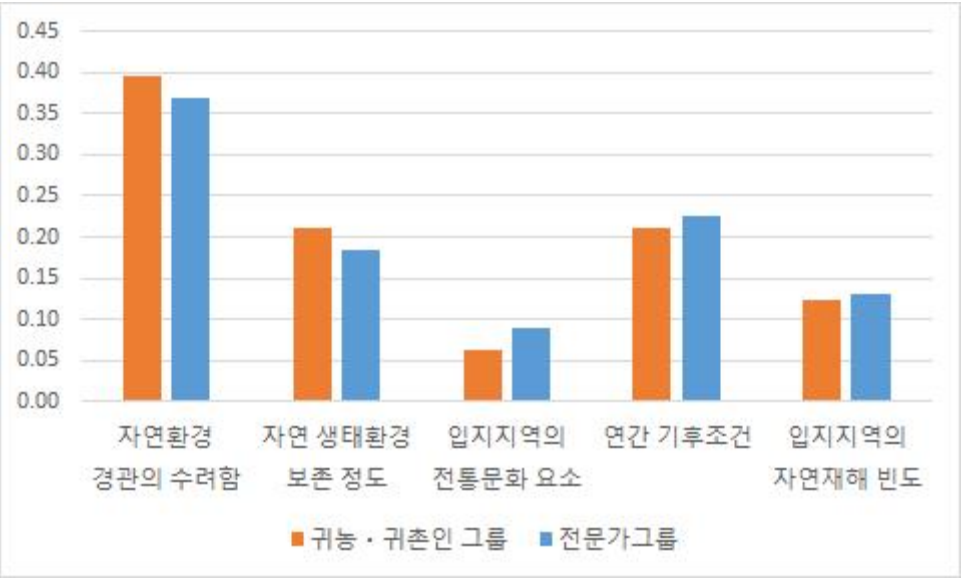
전문가그룹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2계층 상대적 중요도는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이 0.37로 가장 높고, 연간 기후조건(0.23), 자연생태 환경 보존 정도(0.19), 입지 지역의 자연재해 빈도(0.13), 입지 지역의 전통문화 요소(0.09)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그룹은 귀농・귀촌인 그룹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연간 기후조건을 자연생태 환경 보존 정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1> 전문가 그룹의 1계층 환경적 요인의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합계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연간 기후조건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중요도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1.00	1.76	4.24	1.79	2.83	0.37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0.57	1.00	1.96	0.81	1.33	0.19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0.24	0.51	1.00	0.31	0.88	0.09
연간 기후조건	0.56	1.23	3.20	1.00	1.47	0.23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0.35	0.75	1.13	0.68	1.00	0.13
λ_{max}=5.04 CI=0.01 CR=0.01						

<그림 6> 그룹별 1계층 환경적요인에 대한 중요도



1계층 정책적 요인의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이 0.47로 가장 높았고,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0.18), 영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및 창업 컨설팅 제공 여부(0.16),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0.10),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0.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정책적 요인보다도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제도가 우선순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귀농·귀촌인 그룹의 1계층 정책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합계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중요도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1.00	1.93	0.31	2.16	1.13	0.18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0.52	1.00	0.23	1.10	0.50	0.10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3.20	4.32	1.00	4.11	3.39	0.47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0.46	0.91	0.24	1.00	0.57	0.09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0.88	2.00	0.30	1.75	1.00	0.16
λ_{max}=5.03 CI=0.01 CR=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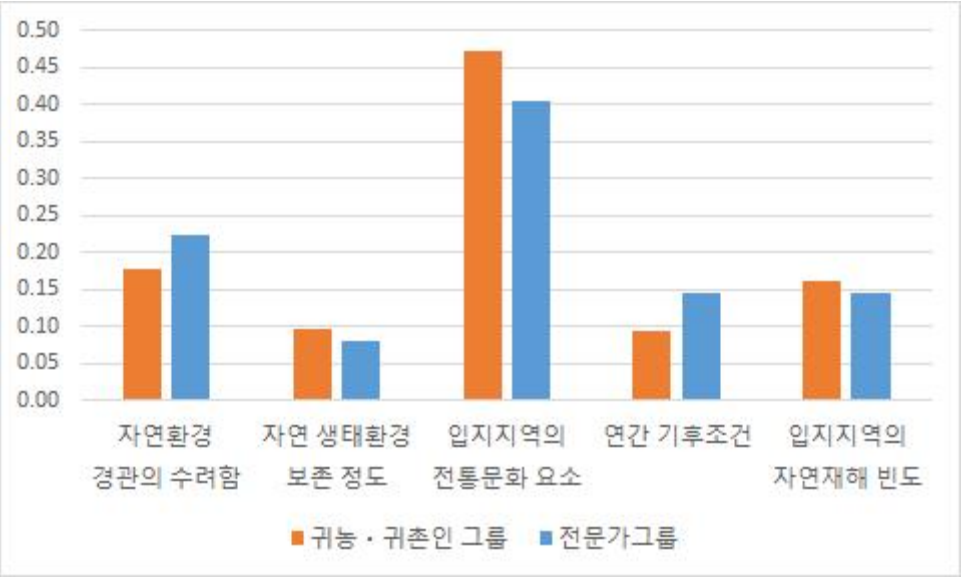
전문가 그룹의 정책적 요인에 대한 2계층 상대적 중요도는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이 0.40으로 가장 높았고,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0.22),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0.15),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0.15),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0.08) 순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인 그룹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그룹에서도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제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3> 전문가 그룹의 1계층 정책적 요인 하위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합계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중요도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1.00	2.66	0.55	1.61	1.49	0.22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0.38	1.00	0.23	0.49	0.54	0.08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1.82	4.44	1.00	2.80	3.09	0.40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0.62	2.03	0.36	1.00	0.96	0.15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0.67	1.86	0.32	1.05	1.00	0.15
λ_{max}=5.01 CI=0.00 CR=0.00						

<그림 7> 그룹별 1계층 정책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룹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의 종합중요도는 상위기준 중요도와 하위기준 중요도를 곱한 값이다. 먼저 귀농·귀촌인 그룹의 종합중요도 산출 결과 중 상위 5개 순위를 살펴보면 환경적 요인이 3개, 경제적 요인 2개로 농촌지역이 보유한 자연환경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들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는 환경적 요인의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으로,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순위는 경제적 요인의 주택·토지가격으로, 귀농·귀촌을 결정할 때 거주할 곳의 부동산 상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순위와 4순위는 환경적 요인의 자연생태 환경 보존 정도와 연간 기후조건으로 자연환경 부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순위는 경제적 요인의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으로 귀농·귀촌 이후의 생활을 위한 소득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개 순위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 1개, 정책적 요인 4개로 다른 요인에 비해 정책적 요인의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의 경우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이 16순위,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 여부가 17순위, 입지 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가 19순위,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가 20순위로 귀농·귀촌지 원주민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향 또는 연고지의 여부가 18순위로, 귀농·귀촌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4> 귀농·귀촌인 그룹의 삶의 질 향상 요인 평가기준의 중요도 종합

구 분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환경적요인	정책적요인	종합 가중치	우선 순위
			0.21	0.30	0.38	0.12		
사회적 요인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0.28	0.06				0.06	6
	대중교통 편의성	0.15	0.03				0.03	14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0.24	0.05				0.05	9
	고향 또는 연고지	0.08	0.02				0.02	18
	거주지역 치안수준	0.25	0.05				0.05	8
경제적 요인	주택 ·토지가격	0.42	0.12				0.12	2
	농지가격·농지임대료	0.15	0.04				0.04	11
	농업소득 창출기회 및 조건	0.13	0.04				0.04	13
	농외소득 창출기회 및 조건	0.24	0.07				0.07	5
	입지지역 생활물가	0.13	0.04				0.04	12
환경적 요인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0.40	0.15				0.15	1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0.21	0.08				0.08	4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0.06	0.02				0.02	15
	연간 기후조건	0.21	0.08				0.08	3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0.12	0.05				0.05	10
정책적 요인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0.18	0.02				0.02	16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0.10	0.01				0.01	19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0.47	0.06				0.06	7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0.09	0.01				0.01	20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0.16	0.02				0.02	17
			1.02				1.0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전문가그룹의 종합중요도 산출 결과 중 상위 5개 순위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에서 3개, 경제적 요인에서 2개로 나타나 귀농·귀촌인 그룹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순위는 경제적 요인의 주택·토지가격으로, 귀농·귀촌을 위해 정착할 곳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모두 사회적 요인으로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 조건, 거주지역 치안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이주하더라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료시설과 전반적인 인프라들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순위는 경제적 요인의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으로 나타났다. 하위 5개 그룹을 살펴보면 환경적 요인 2개, 정책적 요인 3개로 나타났다. 16순위는 환경적 요인의 입지 지역의 자연재해 빈도로, 제주지역은 매년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를 겪지만 그만큼 대비와 사후 조치가 잘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순위와 18순위는 정책적 요인의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 여부로 나타났다. 또한 19순위와 20순위는 각각 환경적 요인의 입지 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정책적 요인의 입지 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로 나타났는데, 하위 5개 그룹은 대부분이 지역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나타나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5> 전문가 그룹의 삶의 질 향상 요인 평가기준의 중요도 종합

구 분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환경적요인	정책적요인	종합	우선
			0.41	0.33	0.15	0.11	가중치	순위
사회적요인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0.26	0.11				0.11	3
	대중교통 편의성	0.14	0.06				0.06	7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0.32	0.13				0.13	2
	고향 또는 연고지	0.11	0.04				0.04	10
	거주지역 치안수준	0.17	0.07				0.07	4
경제적요인	주택 ·토지가격	0.40	0.13				0.13	1
	농지가격·농지임대료	0.13	0.04				0.04	11
	농업소득 창출기회 및 조건	0.20	0.07				0.07	5
	농외소득 창출기회 및 조건	0.20	0.07				0.07	6
	입지지역 생활물가	0.07	0.02				0.02	15
환경적요인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0.37	0.06				0.06	8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0.19	0.03				0.03	13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0.09	0.01				0.01	19
	연간 기후조건	0.23	0.03				0.03	12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0.13	0.02				0.02	16
정책적요인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0.22	0.02				0.02	14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0.08	0.01				0.01	20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0.40	0.04				0.04	9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0.15	0.02				0.02	17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0.15	0.02				0.02	18
			1.00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시사점

앞서 귀농·귀촌인 그룹과 전문가그룹의 AHP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주로 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그룹은 주로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귀농·귀촌인 그룹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영위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전문가그룹은 더 넓은 관점에서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위 5개 요인을 살펴보면 귀농·귀촌인 그룹의 경우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연간 기후조건, 자연생태 환경 보존 정도가 각각 1순위, 3순위, 4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바쁜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위해 귀농·귀촌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토지가격이 2순위,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이 5순위로 귀농·귀촌 시 거주할 곳과 생활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제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문가그룹은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 조건, 거주지역 치안 수준을 각각 2순위, 3순위, 4순위로 선택하였다. 이는 자연환경에 이끌려 귀농·귀촌을 선택해도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토지가격을 1순위로 선택하여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과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이 공동으로 5순위가 되었는데, 이는 귀농·귀촌인 모두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아 농촌지역에 원만하게 적응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위 5개 요인을 살펴보면 귀농·귀촌인 그룹의 경우 귀농·귀촌 교육 및 지원정책과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 여부가 16위, 17위이고, 입지 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가 19, 20위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 그룹은 귀농·귀촌에 대한 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육이나 영농 등을 위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지 지역의 마을 공동조직이나 귀농·귀촌인 모임의 활성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귀농·귀촌인 그룹은 근로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점이나 타인과의 교류가 아닌,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이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와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 여부가 각각 17위, 18위로 분석되었다. 또한 입지 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가 20위로 전문가그룹 역시 귀농·귀촌인 그룹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교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농촌지역 귀농·귀촌인 대부분이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이주를 결정하지만, 주택·토지가격과 농외소득 등 경제적인 부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주지역은 2016년 3분기까지 평균지가상승률이 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제2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대정읍, 안덕면 등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며 높은 수준의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김준석, 2019) 따라서 제주지역으로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토지 관련 부분 지원과, 이주 후에도 원만하게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 데 있다. 2010년대 제주로의 이주 열풍이 불면서 현재 제주지역 인구는 7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 제주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도 감소하면서 제주지역의 인구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제주지역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의 제주 농촌지역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망분석하고, 입지계수 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 농업의 입지 변화를 살펴본 후, AHP 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 이주민들이 이주를 결정할 때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석한다. 이후 제주지역 이주인구들의 원만한 정착 생활을 위하여 삶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인구 전망분석에는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사용하였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80년~2015년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주지역 농업의 입지변화에 대해서는 입지계수 분석(LQ)을 사용하였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과 제주지역의 농업 종사자 수 및 농업 부문 지역소득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제주지역으로의 이주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을 알기 위한 분석으로는 AHP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현재 제주지역으로 귀농·귀촌한 17명과 제주연구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발전 분야 박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지역의 농촌인구는 2020년 191,739명에서 2030년 206,147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0~14세 인구는 20210년 10.7%에서 2030년 5.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5~64세 인구는 2020년 54.2%에서 2030년 38.8%까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인구인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35.1%에서 2030년 55.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농촌지역도 고령화가 심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지역 농업 부문에 대한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농업 종사자 수와 농업 부문 부가가치 모두 입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귀농' 이 아닌 '귀촌' 을 위한 이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귀촌인 그룹과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여 제주지역으로 이주한 인원들이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인한 결과 귀농・귀촌인 그룹에서는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1순위), 자연생태 환경 보존 정도(3순위), 연간 기후조건(4순위), 주택・토지가격(2순위) 등 자연환경과 주거 관련 요인들이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12순위), 농지가격・농지 임대료(15순위),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16순위) 등 농업과 관련한 요인들은 후 순위에 위치하였다. 반면 전문가그룹에서는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2순위),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 조건(3순위), 거주지역 치안 수준(4순위), 주택・토지가격(1순위),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공동 5순위) 등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들이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환경 못지않게 생활 편의시설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귀농・귀촌인 그룹의 결과와 전문가그룹의 결과를 조합하여 이주 인원들이 제주지역에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았을 때 제주지역 인구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분석되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위해 제주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유입과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인구 전망분석에서 농촌지역 인구수만 이용하여 이촌율을 계산하면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제주 전체인구의 이촌율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구 전망에 있어 농촌지역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언론매체에 많이 노출된 애월읍, 국제학교가 위치한 대정읍, 신화역사공원이 조성된 안덕면 등의 요인에 더하여 타 시도와는 다른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수요가 많아 전망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번째는 AHP 분석 수행 시 ‘귀촌’을 위해 제주지역으로 이주한 설문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귀농’을 위한 제주지역으로의 이주민을 늘리려면 어떤 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전문가 AHP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으나, ‘귀농’을 위하여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여 다룰 것을 제언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고태호・김세일・정권오(2019),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제주연구원 정책연구』 2019-02

관계부처 합동(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김민영・최현(2015),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pp.40~79.

김배성・최세현(2007), “농촌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과 성격 - 농촌지역 인구구조 및 외국인 인구 변화 전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Vol15 No.3, pp.291~307.

김용렬・김경덕(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준석(2019),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 분석”,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44권 2호, pp.23~44.

부혜진(2015),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1 No.2, pp.226~241.

손용정(2021), “입지계수를 이용한 국내 주요 항만의 화물특화도 분석”, 『기업과 혁신연구』 Vol.44 No.3, pp.19~21.

염미경(2019), “제주 이주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대응”, 『제주도연구』 Vol.51, pp.181~217.

오은열・문채(2016), “지역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시행정학보』Vol.29 No.4, pp.67~92

이성용(2014), “제주지역의 인구이동과 지역구조 변화 분석”. 『국토계획』 Vol.49 No.2, pp.41~53.

이찬영(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Vol.31 No.2, pp.707~729.

통계청(2021), “2020년 출생 통계”.

홍성효・유수영(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Vol.13 No.1, pp.1~19.

황인건(2005), “AHP를 이용한 국내 제3자 물류업체 선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R. W. Saaty(1987),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What it is and How it is used.”,『Math Modelling』 Vol 9. No. 3-5, pp. 161-17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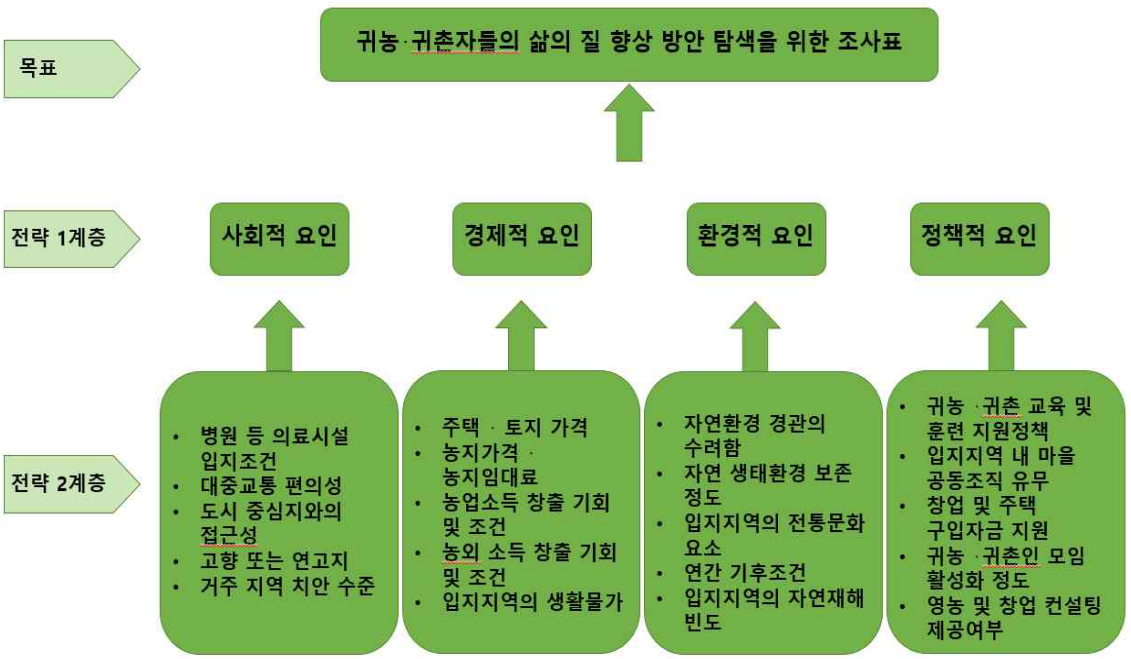
귀농·귀촌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 탐색을 위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귀농·귀촌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를 위한 자료입니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주관 :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동욱 (☎ 010-2107-0550)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구조



※ 위 구조도는 「귀농·귀촌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 탐색」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4가지 하부목표 달성이 필요하며, 각 하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하부그룹 아래 세 부전략들의 달성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설문 응답 요령

□ **설문 1단계: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4가지 하부목표들의 중요도를 고려하시어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시고**

항목	① 사회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
우선순위 설정예시	경제	환경	정책	사회

□ **설문 2단계: 위와 같이 먼저 우선순위를 매기셨다면, 정해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 각 설문에 중요도를 체크(응답)**

위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응답 사례																	
특성 A	A 가 절대로 중요		A 가 확실히 중요		A 가 매우 중요		A 가 약간 중요		서로 비슷한 정도		B 가 약간 중요		B 가 매우 중요		B 가 확실히 중요		B 가 절대로 중요	특성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																▶	
① 사회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① 사회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① 사회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

☞ **나머지 각 세부전략 내 요인들 간에 중요도 우선순위 체크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설문시작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하부간 중요도 평가

1. 귀농·귀촌자들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요소 선정을 위한 하부목표를 ① 사회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의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항목	① 사회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
우선순위 설정				

1-1. 4가지 하부목표의 우선순위를 먼저 매기시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각 사안별로 얼마나 더 중요하다(우선적으로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항목별로 전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응답 사례																		
특성 A	A 가 절대로 중요		A 가 확실히 중요		A 가 매우중요		A 가 약간중요		서로 비슷한 정도		B 가 약간중요		B 가 매우중요		B 가 확실히 중요		B 가 절대로 중요	특성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																▶	
① 사회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① 사회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① 사회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④ 정책적 요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부목표의 세부요소 중요도 평가 - 사회적 요인 세부전략 평가

2. 사회적 요인의 세부요소를 ①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② 대중교통 편의성, ③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④ 고향 또는 연고지, ⑤ 거주 지역 치안 수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항목	①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②대중교통 편의성	③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④ 고향 또는 연고지	⑤ 거주 지역 치안 수준
우선순위 설정					

2-1. 4가지 하부목표의 우선순위를 먼저 매기시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각 사안별로 얼마나 더 중요하다(우선적으로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항목별로 전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응답 사례																		
특성 A	A 가 절대로 중요		A 가 확실히 중요		A 가 매우 중요		A 가 약간 중요		서로 비슷한 정도		B 가 약간 중요		B 가 매우 중요		B 가 확실히 중요		B 가 절대로 중요	특성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																▶	
①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② 교통 편의성
①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③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①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④ 고향 또는 연고지
① 병원 등 의료시설 입지조건																		⑤ 거주 지역 치안 수준
② 교통 편의성																		③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② 교통 편의성																		④ 고향 또는 연고지
② 교통 편의성																		⑤ 거주 지역 치안 수준
③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④ 고향 또는 연고지
③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⑤ 거주 지역 치안 수준
④ 고향 또는 연고지																		⑤ 거주 지역 치안 수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부목표의 세부요소 중요도 평가 - 경제적 요인 세부전략 평가

3. 경제적 요인의 세부요소를 ① 주택·토지가격, ② 농지가격·농지임대료, ③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④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⑤ 입지지역의 생활물가로 구분하였습니다.

항목	① 주택·토지가격	②농지가격·농지임대료	③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④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⑤ 입지지역의 생활물가
우선순위 설정					

3-1. 4가지 하부목표의 우선순위를 먼저 매기시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각 사안별로 얼마나 더 중요하다(우선적으로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항목별로 전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응답 사례																		
특성 A	A 가 절대로 중요		A 가 확실히 중요		A 가 매우 중요		A 가 약간 중요		서로 비슷한 정도		B 가 약간 중요		B 가 매우 중요		B 가 확실히 중요		B 가 절대로 중요	특성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																▶	
① 주택·토지가격																		②농지가격·농지임대료
① 주택·토지가격																		③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① 주택·토지가격																		④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① 주택·토지가격																		⑤ 입지지역의 생활물가
② 농지가격·농지임대료																		③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②농지가격·농지임대료																		④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②농지가격·농지임대료																		⑤ 입지지역의 생활물가
③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④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③ 농업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⑤ 입지지역의 생활물가
④ 농외소득 창출 기회 및 조건																		⑤ 입지지역의 생활물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부목표의 세부요소 중요도 평가 - 환경적 요인 세부전략 평가

4. 환경적 요인의 세부요소를 ①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②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③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④ 자연재해 빈도, ⑤ 생태적인 삶과 정신적인 여유로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항목	①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②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③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④ 연간 기후조건	⑤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우선순위 설정					

4-1. 4가지 하부목표의 우선순위를 먼저 매기시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각 사안별로 얼마나 더 중요하다(우선적으로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항목별로 전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응답 사례																	
특성 A	A 가 절대로 중요		A 가 확실히 중요		A 가 매우 중요		A 가 약간 중요		서로 비슷한 정도		B 가 약간 중요		B 가 매우 중요		B 가 확실히 중요		B 가 절대로 중요	특성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																▶	
①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②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①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③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①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④ 연간 기후조건
① 자연환경 경관의 수려함																		⑤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②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③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②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④ 연간 기후조건
② 자연 생태환경 보존 정도																		⑤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③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④ 연간 기후조건
③ 입지지역의 전통문화 요소																		⑤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④ 연간 기후조건																		⑤ 입지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부목표의 세부요소 중요도 평가 - 정책적 요인 세부전략 평가

5. 환경적 요인의 세부요소를 ① 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②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③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④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⑤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로 구분하였습니다.

항목	①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②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③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④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⑤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우선순위 설정					

5-1. 4가지 하부목표의 우선순위를 먼저 매기시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각 사안별로 얼마나 더 중요하다(우선적으로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항목별로 전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응답 사례

특성 A	A 가 절대로 중요		A 가 확실히 중요		A 가 매우 중요		A 가 약간 중요		서로 비슷한 정도		B 가 약간 중요		B 가 매우 중요		B 가 확실히 중요		B 가 절대로 중요	특성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①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② 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①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③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①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④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①귀농·귀촌 교육 및 훈련 지원정책																		⑤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②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③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②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④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②입지지역 내 마을 공동조직 유무																		⑤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③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④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③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⑤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④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⑤ 영농 및 창업 컨설팅 제공여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귀하의 소속은 아래 중 어디입니까?

① 귀농·귀촌인
② 제주대학교
③ 제주연구원
④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⑤ 기타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